

문화광장



이 나 연
독립큐레이터·미술평론가

두 집 살림을 한다. 아니, 사무실까지 쟁하면 네 집이다. 제주에만 있던 집과 사무실을 서울에 하나씩 더 구했다. 서울집에는 남편이 있고 제주집엔 하우스 메이트가 있다. 서울사무실은 출판사를 위해, 제주 공간은 잡지발행과 전시를 위해 돌아간다. 냉장고가 네 개, 책상도 네 개, 커피장비도 꼭 네 개씩이다. 찾는 책이 없으면 저기에 있는 모양이고, 그 옷은 입어두면 없고, 저 신발도 마찬가지다.
어쩌다 이 인생은 사 등분으로 나

네 개의 코너를 돌아 다시

눕었다. 네 개의 삶을 한꺼번에 살아낸다 셈치고 어수선한 신변을 종종거리며 정리한다. 포 코너스, 즉 네 개의 코너들이라는 이름을 가진 야구의 기원인 게임을 생각한다. 네 군데의 베이스가 있고, 베이스에서 공을 친 뒤에 네 군데의 베이스를 다 돌면 득점을 하는 게임이다. 네 곳의 공간을 다니며 짐을 부려놓고, 무엇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며 물건을 찾고 있는 모습은 여럿이 하는 포코너스 게임을 혼자서 하는 느낌이다. 베이스를 찍고, 공을 치고, 또 베이스를 찍고, 공을 치는 일이 반복된다.

서울 베이스에서는 분리수거물과 쓰레기를 화·목·일에 집 앞에 해가 질 녘에 해야 한다. 제주 베이스에서는 매일매일 분리수거하는 품목이 다르고, 반드시 집 근처 클린하우스에 배출해야 한다. 요일을 착각하면 뽀뽀없

이 쓰레기를 되가지고 돌아와야 한다. 그리고 같은 한국에서도 지역별 정책에 따라 삶의 방식이 달라진다는 점에 새삼 놀라게 된다. 베이스를 찍고 공을 치는 반복행동에 조그만 변칙들이 끼여든다. 온라인으로 필요한 물건을 제주집 주소로 배송해두고 후회하는 일도 생긴다. 도서 산간 추가비용이 발생하는데, 거기가 크기가 좀 크기라도 하면 착불로 추가비용을 더 받는다. 서울에선 낮에 주문한 물건이 밤에 도착해 깜짝 놀라기도 한다. 물건이 너무 빨리 도착해도 놀란다는 걸 경험한다. 집이 역세권인 서울에선 지하철과 버스가 시간과 비용이 절약되는 방법이다. 주택가에 집이 있는 제주에선 가까운 거리는 그냥 걸거나 먼 거리는 택시를 타는 것이 편하다. 운항편이 있다면 해외를 나갈 때는 제주공항이 유리하다. 시내에 공항이 있다는 장점은 이동시간과 여행의 피

로도를 꽤 걸잡시켜준다. 같은 맥락으로 국내 출장을 가기도 용이하다. 육지 여타지역에서 어떤 장소로 이동할 때 KTX로 출장비가 청구되지만, 섬인 제주지역은 당연히 비행기값이 지원된다. 한 시간 남짓이면 한국의 어느 곳이든 갈 수 있는 제주출발 출장이 당연히 시간면에서 경제적이다. 다만 날씨가 변수다. 유난히 태풍이 잦았던 2019년 가을은 출도착운행정보를 수차례 확인하는 초조한 습관을 선물해줬다. 태풍의 계절이 지나고 나면 폭설의 시즌이 온다.

가끔 서울 하늘 아래서 왜 한라산이 안 보일까 궁금해하다 머리를 저으며 정신을 차리기도 한다. 언제나 그랬듯이 이 또한 곧 적응될 것임을 안다. 늘 길바닥에서 있는 것 같다고 여겨지지만, 사실 내전 거점이었다. 많이 있다. 오늘도 베이스를 찍고 공을 치고 베이스를 찍고 공을 친다.

사설

주52시간 근무제로 감귤유통 걱정된다

주52시간 근무제는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한 근로제도입니다. 법정근로 40시간과 연장근로 12시간을 포함한 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으면 안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50인 이상 사업장은 내년 1월부터 주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됩니다. 그런데 노조감귤 수확철을 맞으면서 제주지역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는 인력 운용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제주도와 제주농협 등에 따르면 현재 1차산업과 관련한 도내 주52시간 근무제를 시행중인 사업장은 제주농협·감귤·제주축협 등 3곳입니다. 이어 2단계(50인 이상 150인 미만) 적용 대상은 고산농협(50인 미만)을 제외한 나머지 도내 농협 19곳이 해당됩니다. 사실상 내년부터 도내 APC의 주52시간 근무제가 전면 시행되는 셈입니다. 특히 감귤 수확철을 맞아 APC 인력난이 예상되면서 감귤유통에

큰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감귤은 수확과 유통이 일시에 집중되는 계절적 특성상 APC에 주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될 경우 출하물량 처리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게다가 기존 인력 외에 추가 고용으로 발생한 인건비 부담 등 경영비 증가는 농가 부담으로 직결돼 걱정입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감귤의 품질 저하 및 부패와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현장에서 인력을 제때 충원하지 못해 APC가동이 지연될 경우 선과가 늦어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 부패가 발생하는 등 감귤의 품질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 9월 제주농협과 (사)제주감귤연합회는 감귤 APC의 주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 등을 정부에 건의한 것입니다. 자칫 제주의 생명산업인 감귤이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될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만큼 정부 차원의 합리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기대합니다.

제주혈액원 직원들 본업보다 잭밥에 신경

도민 건강관리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제주혈액원 직원들이 상당 기간 단단계 판매를 해온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직원 운영규정을 어긴 채 혈액원 직원 3명 중 1명꼴로 단단계 판매 활동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경고 처분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습니다. 이는 국회 보건복지위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드러났습니다.

13년 동안 종사해 왔다고 합니다. 판매행위는 봉사활동을 하는 학생이나 헌혈자가 있는 근무 공간에서도 버젓이 벌어졌더니 기가 찰 노릇입니다. 이쯤되면 본업인 혈액원 업무 보다는 잭밥에 더욱 신경 쓴 것 아니냐는 비난을 받아도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이런 일을 결코 가버이 여겨선 안되는 것은 혈액원의 중요성 때문입니다. 혈액원은 적절한 혈액 관리와 수급을 책임져야 하는 곳입니다. 도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곳으로 철저한 근무기강이 요구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장기간에 걸쳐 단단계 판매행위가 이어져 왔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만큼 근무기강이 허술하고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얘기입니다. 자칫 도민의 건강 불안감과 혈액 관리·수급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우려가 큼니다.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등 강력한 재발방지 대책을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열린마당

'범죄 없는 안전 제주' 만드는 초석, CCTV



박 성 연
제주특별자치도 안전정책과장

터와 연계해 '제주안전지킴이'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 나갈 각오이다. 지난 1년 여 간에 절도미수, 주취자, 폭행, 청소년 비위행위 등 2100여건에 대해 즉각적인 초동 조치로 수배자 검거 및 범죄 예방 효과 등을 거뒀고, 올해에만 3000여건이 넘는 사건·사고 발생 영상을 경찰관서에 제공해 범인 검거 등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더불어 도시사 공약사항으로 범죄 다발 및 취약지역, 여성안심귀갓길 등 생활안전 사각지대에 2021년까지 2500여대를 설치할 계획이며, 움직이는 객체만 선별 관제하고 특정 객체에 대한 조건 검색을 할 수 있는 스마트관제를 도입해 내년 1월부터 적용해 나가는 한편 2018년 12월 도입한 CCTV 통합플랫폼을 활용해 경찰, 소방본부, 재난상황실 등 긴급상황 발생시 CCTV 관제센터 영상을 실시간으로 제공해 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있다.

CCTV,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범죄 없는 청정 제주'를 만드는 초석이 될지 기대한다.

* '오피니언' 편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뉴스-in

"도민의견 하나로 모으는 구심점 역할"

원지사, 행정동우회 특강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14일 "어려운 시절에도 도민들을 하나로 통합했던 선배 공직자 여러분의 경험과 경륜을 통해 도민들의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구심점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

원 지사는 이날 퍼시픽호텔에서 열린 제주도 지방행정동우회 주최 특별 강연자로 초청받아 '제주도정 현안의 이해'라는 주제로 민선 7기 도정운영 방향과 현안을 설명.

원 지사는 "도민 통합, 공직혁신, 소통, 실천의 4대 도정 운영기조를 바탕으로 제주 발전과 도민 행복도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다짐. 조상윤기자

도의회 공론화 추진 난항 예고

○...제377회 도의회 임시회가 15일 개최되는 가운데 제2공항 건설과 관련된 도의회의 공론화 추진이 시작단계부터 난항을 예고. 도의회 운영위원회는 오는 25일과 31일 열리는 상임위원회 중

하루에 김태석 도의회 의장과 박원철 민주당 원내대표가 공동 발의한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한 도민 공론화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심사할 예정.

그러나 2공항의 찬반 여부를 떠나 도의회가 공론화를 진행하는게 가능한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등 안전장점을 놓고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여론이 비등. 오은지기자

제주학센터장 인선 관심

○...제주연구원원 4개월 넘게 공석인 제주학연구원센터장 공개 채용에 나서 인선 결과에 관심.

학부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를 대상으로 지방공무원 4급 수준의 센터장 채용 공고를 냈지만 지원자가 1인 이하여서 지난 1일 재공고.

재공고에 맞춰 지난 11일 원서 마감 결과 2인 이상이 지원해 이달 23일부터 서류 심사 등 예정된 절차를 진행할 계획인데 1년 단위 계약 체결 조건이라 일단 임용 기간은 연말까지 명시. 전선희기자

제주지방법원 관할공시
제1심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17고단30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정재복
위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되었으나 증거없음을 이유로 무죄의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19. 10. 14.
판사 박준석

건계분판매
친환경 및 HACCP인증 농장
발효기(폼포스트)로 열처리 발효시켜 완전 건조된 친환경 계분을 판매합니다.
펠렛으로도 가능합니다.
- 제주 전지역 배송가능 -
제주초록영농조합법인
문의 : 010-3693-2000, 010-2696-9876

방수 단열 우레탄 우레아 석주개발
712-3644, 782-3644
010-4690-3636

의료안내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120323-중-3524호
동구치과 의원
DONGGU DENTAL CLINIC
일요일도 정상 진료합니다.
원장 신동구
중앙신협(신속) 2층 동구치과 의원
제주대 제주중앙여고 제주지방법원 시청
제주시 이도2동 2007-8 (중앙여고 입구 맞은편 중앙신협 2층)
756-2833

한라일보가 제주 대표 신문으로 다시 한번 우뚝 섰습니다.
한라일보가 대 勢 세 다!
결혼·부고·축하광고 도내 최다 게재
제주도내 최고의 신문광고 효과!
2019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대상사 선정
2005년 원년부터 14회, 제주지역 '최다' 기록
도내 언론사 최초 '에디트 품질인증' 01
미래창조과학부 / 2016년 발표
제주지역신문 신뢰도 1위 02
리얼미터 / 2015년 발표
제주지역 유료판매부수 1위 03
한국ABC협회 / 2016~2018년
광고 750-2830 · 구독 750-2330 · 서귀지사 732-5552

제주도 토지 매매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평화로변
·생산관리지역 목장용지
·494,244㎡(분할매매 가능)
·2차선 도로점 시멘트 도로점
기타문의 전화요망
010-5110-5660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심에 이룬 성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클
미국식품의약국 SCI A급 등록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로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상담 010-2691-9316
홈페이지 : http://www.baekdoraji.com
주산지 선홍2리 용암동굴계 거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림JK약백도라지연구소

전기차 사고 팝니다.
evworld.kr
전기자동차매매상사
제주시 일주서로 7714(도두일동)
1544-8236